

# 야생동식물 許可없이 포획·유통·보관등 禁止 公害원인자에 환경改善부담금 부과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을 부담케 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공포질차를 거쳐 자연환경보전법은 내년 9월 1일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7월 초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처 장관이 녹지보전지역·자연생태계보호지역·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해양생태계 보호지역 등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을 지정, 천재지변·군사상 목적·환경처장관허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곤 특정행위·입출입 등이 제한된다.

특히 자연생태계 보호지역(녹지보전지역은 제외)에서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는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개·증축행위 ▲ 하천·호소 등의 수위 또는 수량의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立木·竹의 식재·택지의 조성·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 입목·죽외의 식물이나 낙엽 또는 나무가지의 채취 ▲ 동물의 포획·동물의 알채취 ▲ 가축의 방목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하면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폐기물무단폐기 ▲ 합성세제사용 ▲ 인화물질 소지 또는 불을 사용한 취사·야영행위 등도 제한하도록 했다. 이 법률은 또한 보호지역안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환경처장관이 이를 중지토록 명령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해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학술연구용등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곤 특정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을 금지토록 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법의 핵심은 수질·대기

등 대량의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것과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처의 중기종합계획을 관계부처가 소관업무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한 것 등이다.

이와 함께 국가는 환경개선을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의무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개선종합계획의 이행의무를, 그리고 사업자와 국민은 각각 사업활동 중 환경오염 최소화·물자와 에너지절약 등의 책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환경처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자동차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는 용수사용량·지역·오염유발정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는 연료사용량·사용연료지역 등을 고려, 환경개선부담금액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경유자동차는 차령·지역·오염유발정도에 따라 부과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법은 또 국가·지자체·환경관리공단등 시행자가 환경오염이 심화돼 환경기준을 유지·달성키 곤란한 경우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자가 실시하는 방지사업종류로 ▲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운영 ▲ 공장·사업장 밀집지역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녹지형성·중앙열공급 시설 및 공공용 녹지설치 관리 ▲ 환경오염피해발생 농경지·어장·산림 또는 농업용 시설의 객토·삭토·복토·준설사업 등 ▲ 배수설비 등 설치사업 ▲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주택등 기타시설 이전사업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이다.

## 中國 나라전체가 심각한 公害로 몸살 급속한 經濟開發추진에 따른 産廢物등 排出로 인해

中國은 인구증가와 급속한 경제개발 추진에 따른 방대한 산업폐기물 배출로 인해 나라 전체가 심각한 공해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악영향이 인접국들로 급속히 확산돼 국제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蘇聯의 저명한 사회경제학자 유리 미니코프박사는 中國의 정보통계, 현지보도 및 국제기구의 보고기능을 조사 연구, 과학아카데미산하 극동문제연구소기관지 「극동의 제문제」 게재한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中國의 환경안전」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中國의 공해문제는 이 나라에서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특히 韓國·日本·蘇聯이 공동 참여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로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스로 사회주의 개발도상국가임을 자처하는 中國은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적에만 치우친 나머지 연간 1천2백만~1천5백만톤의 질산화탄소를 배출, 이로 인해 오존층이 파괴됨으로써 전체 농지면적의 약16%가 산성오염의 영향을 받고 있는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中國의 삼림도 대대적인 자연보호운동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다. 지난 20년간 삼림지대는 전국토의 8~23%사이로 떨어졌는데 中國이 생태계와 인구를 정상적으로 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삼림녹화율이 30%는 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수 역시 태부족인데다 그나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8백74개 하천의 물을 시험해본 결과 50% 이상이 각종 유독물질로 오염됐으며 이 때문에 전체인구의 65%가 더러운 물을 식수로 사용, 질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세계환경전문가들은 中國의 이같은 환경오염추세가 지속된다면 현재 얻고 있는 경제개발의 긍정적인 측면이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완전히 상쇄돼 결국 통제불능의 지경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이

로 인한 악영향이 인접국은 물론 전세계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中國은 환경보호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GNP의 0.7%만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의 평균 2.5%에 비해 턱없이 적은 규모이다.

## 시베리아 森林은 温暖化방지 「마지노線」 환경보호자들 “아마존 밀림 毀損보다 惡영향 더 심각”

러시아 연방이 그들의 당면한 재정압박·자금수요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美國·日本·韓國 목재회사들과 합작회사를 설립, 광대한 시베리아 삼림자원을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어 세계환경보호론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美國의 뉴욕타임스지는 1일 이들 환경보호론자들이 시베리아 삼림에 대한 대대적인 벌채가 시작될 경우 지구온난화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경보호전문가들이 이제까지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지대에 대한 남벌에만 신경을 곤두세워왔고 실제 아마존 밀림지대의 마구잡이 벌채가 지구의 온난화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문은 환경보호론자들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美國 全내륙지방면적에 거의 해당하는 2백만 평방마일에 달하는 시베리아 삼림이 마구잡이 벌채로 크게 훼손될 경우 아마존 밀림지대에 대한 벌채보다도 전 지구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클 것이며 특히 지구온난화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림은 시베리아 것이든, 아마존 것이든 대기권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공기오염을 막아주고 지구온난화현상을 방지해주는 귀중한 환경보호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이들은 삼림보호 등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구표면의 평균온도가 향후 10년 이내에 화씨3~8도 가량 올라가 세계환경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진단아래 시베리아삼림의 마구잡이 벌채는 어떻게든 막아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타임스는 보도했다.